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연준 이사 사이에 금리 인하 폭 놓고 이견
- Bloomberg: 연준 베이지북 “미 경제가 최근에 별 변동 없어”

### [미국 금융]

- YahooFinance: 미중갈등과 금리 인하 전망에 금값 최고치

### [뉴욕시]

- Bloomberg: 맨해튼 어퍼웨스트 지역 신규 콘도 부족

### [물류]

- Bloomberg: LA 항만 수입 물동량이 8월과 9월에 줄어

### [연방정부 셧다운]

- WSJ: 연방 법원, ‘셧다운 기간중 연방정부의 공무원 해고’ 일시 정지 판결

### [무역전쟁]

- Bloomberg: 중국의 희토류 제재로 미국 우방국들 대응 움직임

### [인공지능]

- CNBC: 월가 대형은행들, 이미 고용 절차에서 AI 사용 중

### [오일]

- Reuters: 유가 상승...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에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UA 항공사 CEO, “해외 여행 수요 회복세”
- CNNBusiness: 세계 최대 식품사 Nestle, 자동화로 일자리 16,000개 감축
- Bloomberg: 자율주행 Waymo, 피닉스에서 도어대쉬 주문 배달 예정
- WSJ: IKEA, 가격 인하 호황 끝나가고 있다

---

### [미국 경제]

## Bloomberg: Fed's Waller Calls for Careful Cuts, Miran Wants Bigger Move 연준 이사 사이에 금리 인하 폭 놓고 이견

- 연준 이사인 Christopher Waller는 혼들리는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0.25%씩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트럼프의 측근으로 연준에 최근에 들어간 Stephen Miran는 큰 폭의 인하를 선호했다.
- Waller 이사는 “실수하지 않기를 원한다. 이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0.25% 내린 후에 또 상황을 지켜보는 접근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- 파월 의장도 이번주 초 발언에서 이달 말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0.25%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.
- 그러나 Miran 이사는 미중 간의 긴장 고조로 미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신속하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.

## Bloomberg: Fed's Beige Book Finds US Economic Activity Little Changed 연준 베이지북 “미 경제가 최근에 별 변동 없어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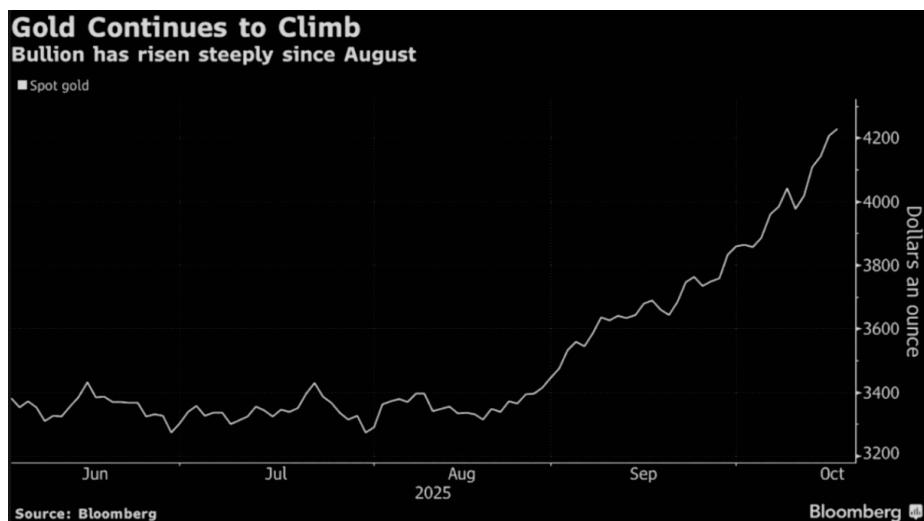
- 연준이 실제 비즈니스 업체들의 상황을 집계해 만든 오늘 수요일 베이지북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최근 수주동안의 경제 활동은 별다른 변동이 없으며 고용수준도 크게 보아 안정적이라고 밝혔다.
- 전반적인 소비지출은 줄어들고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, 국내 각 지별 중에는 투입 비용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.
- 지역에 따라 성장 전망을 다른데 일부 지역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에 수요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은 연방 정부 셧다운의 리스크를 지목했다.

## [미국 금융]

### YahooFinance: Gold Climbs to Record on US-China Tensions and Fed Rate-Cut Bets

#### 미중갈등과 금리 인하 전망에 금값 최고치

- 미중 갈등이 커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 베팅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금값은 최고치를 보였다.
- 이번주에 만도 5% 상승했으며 오늘 온스당 \$4,243를 돌파했다. 이 같은 여파로 어제 수요일 은값도 3% 이상 상승했다.
- 은도 유동성 부족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번주 온스당 53달러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오늘 목요일 소폭 하락했다.



## [뉴욕시]

## Bloomberg: Manhattan New Condos Are in Short Supply on the Upper West Side

### 맨해튼 어퍼웨스트 지역 신규 콘도 부족

- 오는 2028년까지 3년 동안에 맨해튼 어퍼웨스트 지역의 새로운 콘도는 51채 만 지어질 예정이다. 이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새 콘도 8백69채가 건축된 것 보다 큰폭으로 적은 수치다.
- 이 지역 주택 구매자들은 기존 콘도 보다는 신축 콘도를 선호하고 있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부족해 중간 가격이 올해 3분기에 8% 상승했다.
- 이 지역 매물 부족과 높은 가격 때문에 일반 뉴요커들은 구매하기 힘든데 가장 싼 신축 콘도가 3백60만달러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### [물류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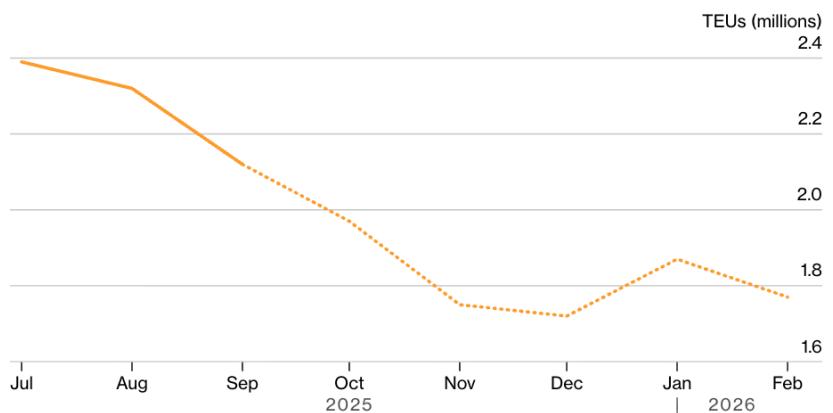
## Bloomberg: LA Port Imports Fell Again in September Despite Busiest Third Quarter Ever

### LA 항만 수입 물동량이 8월과 9월에 줄어

- 매년 3분기는 미국 항만들이 수입 물동량 때문에 바쁜 시즌이다.
-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항만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수입량이 줄었다.
- 이 항만으로 3분기 수입과 수출 전체 물동량은 20피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2.9 million TEU를 기록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의 최고치를 초과한 물량이다.
- 반면에 미국으로의 수입 물동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 내년 1월에 줄어드는데 작년 1월에 비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.

#### US Retailers Predict Cargo Drop-off to Continue

Container import volumes set to fall from front-loading highs



Source: Global Port Tracker, the National Retail Federation and Hackett Associates

Note: Forecast includes a dozen major US seaports. TEUs = twenty-foot container equivalent units

Bloomberg 기사

### [연방정부 셧다운]

## WSJ: Judge Temporarily Blocks Move to Fire Federal Employees During Shutdown

## 연방 법원, '셧다운 기간중 연방정부의 공무원 해고' 일시 정지 판결

-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동안 공무원을 대거 해고시키려는 노력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.
-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동안 여러곳의 연방 부처 공무원 4천명 정도의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렸다.
-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연방 예상과 관련 교착 상태를 막기위해 민주당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.

WSJ 기사

## [무역 전쟁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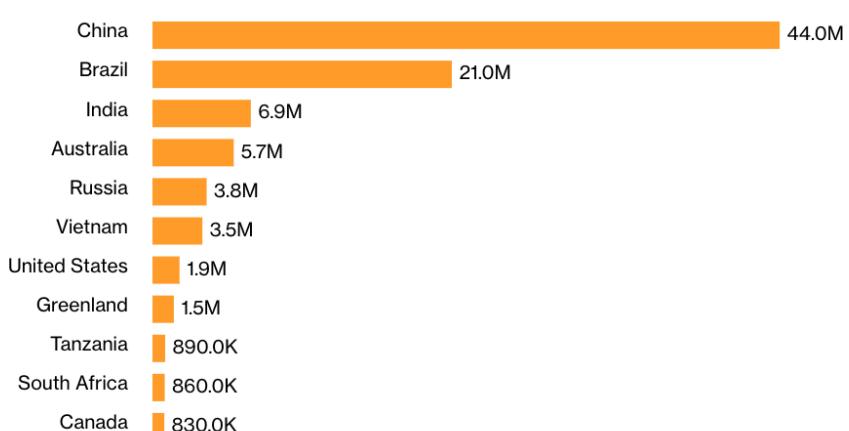
### Bloomberg: Xi's Rare Earth Shock Gives Trump a Chance to Win Over US Allies

#### 중국의 희토류 제재로 미국 우방국들 대응 움직임

- 중국이 희토류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자 미국과 우방국들은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
- 일본 등은 G7에 이 같은 중국 조치에 대해 단합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. 독일 재무장관도 G7 차원의 공동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.
-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은 뚜렷한 이유없이 다른 나라들에 어려움을 안기는 처사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.
- 한편 미중간의 갈등은 한국에서 양국 정상이 6년만에 처음 만나는 상황인데, 양측 협상자들은 향후 긴장 완화와 관세 회전에서 벗어나는 실무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.

### China Has Almost Half of the Globe's Rare Earth Reserves

Metric tons of rare-earth-oxide equivalents



Source: US Geological Survey

Note: Data are January 2025 estimates; reserves unavailable for Burma, Madagascar, Malaysia, Nigeria and other small producers; Thailand's reserves (4,500 tons) not displayed.

Bloomberg 기사

## [인공지능]

## CNBC: Big banks like JPMorgan Chase and Goldman Sachs are already using AI to hire fewer people

월가 대형 은행들, 이미 고용 절차에 AI 사용 중

- 월가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다. 이는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.
- JP Morgan Chase, 골드만 삭스를 포함한 여러 대형 은행들이 AI를 중심으로 회사 재편을 계획하고 있는데, 이는 이들 기업들이 채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감소 할 것을 의미한다.
- JPMorgan은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12%나 급등해 144억 달러를 기록했지만, 직원 수는 겨우 1%만 늘었다고 밝혔다.
- 또한, 5월에 JPMorgan의 한 임원은 투자자들에게 AI 덕분에 사업 규모는 증가 하는 반면, 향후 5년간 운영 담당 직원은 최소 10% 감소할 것이라 전한 바 있다.

CNBC 기사

## [오일]

### Reuters: Oil rises as traders brace for possible Indian halt of Russia imports

유가 상승...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에

-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유가는 안정세를 보 였다. 그러나, 이로 인해 다른 곳에서의 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 유가가 상승 할 수 있다.
-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54센트 상승한 62.45달러를 기록했고,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56센트 상승한 58.83달러를 기록했다.
-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총리 Narendra Modi가 러시아로부터 석유 구매를 중 단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밝혔다.
- 그러나 러시아는 이에 관해 인도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 한다고 전한 바 있다.

Reuters 기사

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### Bloomberg: United's Kirby Says International Travel Demand is Rebounding

UA 항공사 CEO, “해외 여행 수요 회복세”

- United Airline이 국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, 회사가 4분 기에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- 이에 관해 United Airline의 CEO Scott Kirby는 “내년에는 실제로 수요가 연중 더 많이 분산되도록 일정을 재편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- 유나이티드는 올해 초 여행 수요가 급감한 이후, 저가 항공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고급 서비스를 확대해왔으며, 이들은 고객 서비스와 기술에 약 10억 달러를 투 자하고 있다 밝혔다.

- 이들은 이러한 회복세에 따라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, 4분기 조정 주당순이익(EPS)는 3분기 2.78달러에서 3.50달러로 전망된다.

Bloomberg 기사

---

## CNNBusiness: World's largest food company is cutting 16,000 jobs due partly to automation

### 세계 최대 식품사 Nestle, 자동화로 일자리 16,000개 감축

- Nestle가 자동화 등의 비용을 절감을 위해 향후 2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16,000개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. 이들은 프로세스 자동화와 공유 서비스 활용 등을 통해 “운영 효율성”을 목표로 하고 있다.
-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제조 및 공급망 부문에서는 4,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질 예정이다.
- Nestle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. 최근 보고서에는 할인 행사 및 매장 디스플레이 등 홍보에 자동화 및 고급 분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.
- Nestle의 신임 CEO Philipp Navratil은 이에 관해 “인력 감축은 어렵지만 필수적인 결정”이라고 전했다.

CNNBusiness 기사

---

## Bloomberg: Driverless Waymos Set to Deliver DoorDash Orders in Phoenix

### 자율주행 Waymo, 피닉스에서 도어대쉬 주문 배달 예정

- Waymo 자율주행차가 도어대쉬와 파트너십을 맺어 피닉스 지역의 고객들에게 음식 주문을 배달할 예정이다.
- 도어대쉬는 이에 관해 자율 주행 배송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,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Waymo 자율주행차는 도어대쉬 소유의 Dashmart 창고에서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며, 도어대쉬는 자율주행 배송 참여업체 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 덧붙였다.
- Waymo는 도어대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로보택시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빈 운행 (deadhead miles)를 방지할 수 있다.
- 이 배달 파트너십을 통해 피닉스 지역의 유료 DashPass 프로그램 회원은 연말 까지 매달 특정 평일 Waymo 승차 요금을 10달러 할인 받을 수 있다.

Bloomberg 기사

---

## WSJ: IKEA's Yearslong Price-Cutting Bonanza Is Coming to an End

### IKEA, 가격 인하 호황 끝나가고 있다

- IKEA가 수년간 가격을 낮춰오다가 새로운 미국 관세로 인해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.
- 이들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 관세에 노출되어있다. 미국 내 판매 물량의 약 15%만이 지역적으로 조달되며, 이 또한 대부분 북미 지역 공장에서 조달된다.

- IKEA는 이에 관해 “새로운 관세로 인해 미국에서 더 많은 생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”고 밝혔으며 “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찾는 것”이라 덧붙였다.

[WSJ 기사](#)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